

보도자료**2011년 4월 25일(월) 브리핑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이용자보호국 이용자보호과 이재범 과장(☎750-2670)
이용자보호과 김맹호 사무관(☎750-2680) kmho@kcc.go.kr**방통위, 스마트폰 음성통화품질 측정결과 발표****- 2010년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음성통화품질 측정결과’와 ‘2010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객관적인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99년부터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품질평가 대상은 ▲ 스마트폰 음성통화 ▲ 3G 이동전화 ▲ 3G 데이터, ▲ WiFi ▲ 휴대인터넷(WiBro) ▲ 초고속인터넷 ▲ 인터넷전화 ▲ 융합서비스(IPTV)로 하였다.

금번 품질평가는 총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0.10월부터 '11.3월까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스마트폰, 3G 이동전화, 인터넷전화)와 한국정보화진흥원(초고속인터넷, 3G데이터·WiFi, WiBro, IPTV)에서 수행하였다.

금번 품질평가 결과는 이용자보호 관련 중요 정보가 게시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웹사이트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에 게시되어 있다. 이용자들은 방송통신서비스의 사업자간 품질을 비교할 수 있다.

각 서비스별 품질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폰 음성통화

SKT, KT, LGU+ 각 사업자당 가입률이 높은 스마트폰 2종씩을 선정하여 통화성공률을 측정하였다. 금번 측정은 스마트폰 사용 중 끊김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측정방법) 이를 위해 일반폰과 일반폰간, 일반폰과 스마트폰간, 스마트폰과 스마트폰간의 통화성공률을 측정하였으며 스마트폰간의 통화에 있어서도 음성통화만 하는 경우, 데이터를 사용중에 음성통화를 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측정 조건을 설정하였다.

※ 통화성공률 : 통화시도호 중 통화가 성공한(연결이 안되거나, 연결 후 끊기거나, 끊기지 않아도 음질이 불량한 경우를 제외한) 호의 비율

(측정결과) 스마트폰 간 통화성공률(97.6%)은 일반폰 간 통화성공률(98.7%) 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1.1%)

스마트폰 간 통화에 있어서도 음성통화만 하는 경우(98.3%)에는 일반폰(98.7%)과 별 차이가 없으나 데이터를 사용 중에 음성통화를 하는 경우(97.2%)에는 통화성공률이 크게 저하(△1.5%)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일반	일반↔스마트	스마트↔스마트			전체 평균
		평균	음성통화만	데이터사용중	
98.7%	98.6%	97.6%	98.3%	97.2%	98.0%

핸드오버가 빈번이 일어나는 간선도로 지역(96.2%)에서는 주거지역(98.1%)이나 시내지역(97.8%)보다 품질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주거지역	외곽지역	시내지역	간선도로	평균
98.1%	98.1%	97.8%	96.2%	97.6%

동일한 망내에서도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 KT에서는 1.0% 차이를 보인 반면 SKT에서는 0.4%, LGU+에서는 0.3% 차이를 보였다.

KT		SKT		LGU+	
스마트폰A	스마트폰B	스마트폰A	스마트폰B	스마트폰A	스마트폰B
96.9%	95.9%	98.7%	98.3%	98.1%	97.8%

(품질저하 원인) 스마트폰 품질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문제와 단말기 문제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호 총 44,202호 중 통화접속이 실패하거나 접속 후 단절된 854호에 대한 이동통신 시스템 정보를 분석한 결과 43.7%가 네트워크의 문제로 확인되었다. 주요 원인은 ▲ 통화 시도시 발신측 또는 수신측이 음영지역 내에 있거나 통화 연결 후 발신측 또는 수신측이 음영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 신호 혼재지역 등 전파 환경이 불량한 구간에 위치하거나 이동한 경우 ▲ 호폭주에 따른 일시적인 호처리 능력 저하 등 시스템 장애이다.

기타 56.3%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단말기 문제 또는 네트워크의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시스템 정보와 단말기 정보를 상호 대사해 볼 필요가 있다.

(개선대책) 스마트폰 음성통화 품질 개선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이동통신사는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시스템을 추가 증설하는 한편 전파환경 개선을 위한 망환경을 최적화하고 제조사는 이용자환경에서의 지속적인 단말기 성능시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단말기의 성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1. 3G(WCDMA) 음성전화 서비스

3G 이동전화 음성통화 서비스는 SKT, KT의 전년도 평가결과 통화성공률이 95%미만인 ‘미흡’지역(SK 121개, KT 203개)에 대한 통화성공률을 측정하였다.

※ LGU+는 CDMA 시스템(2G)으로 음성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평가에서 제외

이동전화 음성통화 서비스의 통화성공률은 SKT, KT 모두 전체 평균 99%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SKT는 전년도 미흡지역 읍·면·동 121개 지역 모두 해소되었으며, KT는 전년도 미흡지역 읍·면·동 203개 지역 중 10개지역이 품질 미흡 지역으로 남아있다.

〈3G 이동전화 음성통화서비스 통화성공률 측정결과〉

품질 판정기준	통화성공률 95%이상 ‘양호’ (100번 통화시도중 통화연결이 실패했거나, 연결되어도 통화중 끊겼거나, 끊기지 않아도 음질이 불량한 경우가 5회 이하시 ‘양호’)
품질 미흡지역	(전체) 전년도 미흡지역 읍면동 223개 중 10개(4.5%) 품질미흡 (SKT) 전년도 미흡지역 읍면동 121개 중 0개(0%) 품질미흡 (KT) 전년도 미흡지역 읍면동 203개 중 10개(4.9%) 품질미흡
전국 통화성공률	(전체) 99.51%, (SKT) 99.81%, (KT) 99.22%

2-2. 3G(WCDMA) 영상전화 서비스

3G 이동전화 영상통화 서비스는 SKT, KT, LGU+의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지역(SK 120개, KT 173개, LGU+ 389개)에 대한 통화성공률을 측정하였다.

SKT, KT의 이동전화 영상통화 서비스의 전체 평균 통화성공률은 99% 이상으로 ‘양호’하나 LGU+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SKT는 전년도 미흡지역 읍·면·동 120개 지역 모두 해소되었으며, KT는 전년도 미흡지역 읍·면·동 173개 지역 중 5개지역이, LGU+는 전년도 미흡지역 읍·면·동 389개 지역 중 156개지역이 품질미흡 지역으로 남아있다.

〈3G 이동전화 영상통화서비스 통화성공률 측정결과〉

품질 판정기준	통화성공률 95%이상 '양호'(100번 통화시도중 통화연결이 실패했거나, 연결되어도 통화중 끊어진 경우가 5회 이하시 '양호')
품질 미흡지역	(전체) 전년도 미흡지역 읍면동 427개 중 160개(37.5%) 품질미흡 (SKT) 전년도 미흡지역 읍면동 120개 중 0개(0%) 품질미흡 (KT) 전년도 미흡지역 읍면동 173개 중 5개(2.89%) 품질미흡 (LGT) 전년도 미흡지역 읍면동 389개 중 156개(40.17%) 품질미흡
전국 통화성공률	(전체) 97.88%, (SKT) 99.81%, (KT) 99.43%, (LGU+) 94.39%

3. 3G 데이터 서비스

3G 데이터 서비스는 SKT, KT, LGU+의 자사망과 전구간에 대한 전송속도와 웹서핑 시간을 측정하였다.

※ LGU+는 CDMA 1X EV-DO. rA를 통해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평가에 포함

3G 데이터 서비스는 사업자별 전송속도를 비교하기에 앞서 단말기에 적용된 무선접속규격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 평가에는 각기 다른 무선접속규격(HSUPA, HSDPA, Ev-Do. rA)이 적용된 다양한 단말기로 측정되었으며, 무선접속규격에 따라 단말기간의 차이가 발생

※ 무선접속규격별 이론적속도 : HSUPA(DL 14.4Mbps, UL 5.7Mbps), HSDPA(DL 14.4Mbps, UL 0.384Mbps), Ev-Do. rA(DL 3.2Mbps, UL 1.8Mbps)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자사망구간과 전구간 모두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어 이용자는 자사망 구간에서 전체 평균 1.74Mbps, 전구간에서는 전체 평균 1.42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구간의 웹서핑 시간은 전체 평균이 9.61초로 국제 표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4초 이내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3G 데이터서비스 전송속도 측정결과〉

구분		전구간			자사망 구간	
		컨텐츠 송수신		웹서핑 시간(sec)	다운로드(Mbps)	업로드(Mbps)
		다운로드(Mbps)	업로드(Mbps)			
전체		1.42(0.80)	0.57(0.14)	9.61	1.74(1.31)	0.65(0.22)
WCDMA	SKT	1.91(0.88)	0.61(0.10)	9.03	2.49(1.50)	0.83(0.11)
	KT	1.19(0.86)	0.60(0.09)	9.73	1.45(1.44)	0.58(0.10)
Ev-Do.rA	LGU+	0.83(0.67)	0.33(0.25)	10.46	0.86(0.98)	0.43(0.43)

※ ()안의 수치는 '09년 평가결과

포털 사업자별 전구간 다운로드 속도는 1.66Mbps~1.27Mbps로 0.08Mbps~0.39Mbps 속도 차이를 보였다.

〈 포털사업자별 3G 데이터서비스 전송속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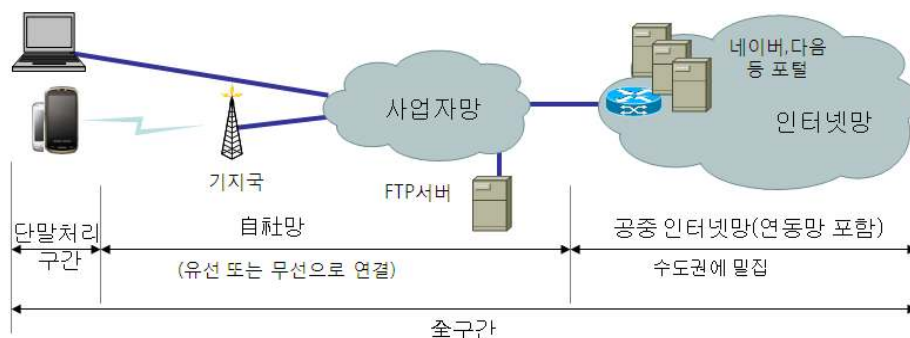
구분	다음	네이버	네이트
다운로드(Mbps)	1.66	1.35	1.27
업로드(Mbps)	0.60	0.51	0.59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원활한 웹서핑이나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기에 필요한 최소속도(512Kbps)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미흡지역은 KT 4개지역, LGU+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3G 이동전화 데이터서비스 전송속도 측정결과〉

품질 판정기준	自社망 다운로드 속도 512Kbps 이상 '양호'
품질 미흡지역	(전체)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2,058개 중 0.3%(7개) 품질미흡 (SKT)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1,486개 중 0.0%(0개) 품질미흡 (KT)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1,176개 중 0.3%(4개) 품질미흡 (LGT)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856개 중 0.4%(3개) 품질미흡

〈 유·무선 인터넷 품질측정 구성도 〉



4. WiFi

WiFi 서비스는 SKT, KT, LGU+의 자사망과 전구간에 대한 전송 속도와 웹서핑 시간을 측정하였다.

평가에 앞서 WiFi 서비스는 사업자별로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차이가 나며 동일한 WiFi 서비스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가 많아질 수록 속도가 낮아진다.

- ※ 전국 AP 설치 수('11.3월말 현재) : KT 103,677개, SKT 38,000개, LGU+ 8,040개
- ※ 평가에는 각기 다른 WiFi 접속규격(802.11g, 802.11n)이 적용된 다양한 단말기로 측정되었으며, WiFi 접속규격에 따라 단말기간의 속도 차이가 발생
- ※ WiFi 접속규격별 이론적속도 : 802.11g(DL/UL 54Mbps), 802.11n(DL/UL 144Mbps)

서비스 제공3사의 전체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자사망구간에서 9.59Mbps, 전구간에서는 6.76Mbps로 3G망에서의 속도보다 4~5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전구간의 웹서핑 시간은 전체 평균이 4.85초로 국제 표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4초 이내에는 조금 부족하였다.

〈WiFi 서비스 전송속도 측정결과〉

구분	전구간			자사망 구간	
	컨텐츠 송수신		웹서핑 시간(sec)	다운로드(Mbps)	업로드(Mbps)
	다운로드(Mbps)	업로드(Mbps)			
사업자 평균	6.76	3.57	4.85	9.59	7.20

포털 사업자별 전구간 다운로드 속도는 4.79Mbps~10.81Mbps로 0.21Mbps~6.02Mbps 속도 차이를 보였다.

〈 포털사업자별 WiFi 전송속도 〉

구분	다음	네이버	네이트
다운로드(Mbps)	10.81	5.00	4.79
업로드(Mbps)	3.76	3.50	3.56

앞으로 이용자가 3G 데이터 서비스처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WiF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서비스 지역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5. 휴대인터넷(WiBro)

WiBro 서비스는 SKT, KT의 자사망과 전구간에 대한 전송속도와 웹서핑 시간을 측정하였다.

사업자별 WiBro 서비스 전송속도 비교에 앞서 사업자별로 서비스 제공 지역이 차이가 나며 동일한 서비스지역 내에서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속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WiBro 서비스 커버리지 및 이용자 수('11.3월말 현재)〉

구분	서비스 지역		가입자수
	도시 수	82개시 면적 대비	
KT	82개시	26.0%	409,817명
SKT	82개시	10.7%	80,605명

전체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자사망구간에서 6.5Mbps, 전구간에서는 4.18Mbps로 3G망에서의 속도보다 2~3배 이상 높았으며, 전년도에 비해 속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전구간의 웹서핑 시간은 전체 평균이 3.22초로 국제 표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4초 이내를 만족하였다.

〈WiBro 서비스 전송속도 측정결과〉

구분	전구간			자사망 구간	
	컨텐츠 송수신		웹서핑 시간(sec)	다운로드(Mbps)	업로드(Mbps)
	다운로드(Mbps)	업로드(Mbps)			
전체	4.18(1.94)	1.61(0.80)	3.22	6.50(2.49)	1.92(1.04)
SKT	4.78(2.11)	1.82(0.83)	2.84	7.07(2.78)	2.26(1.09)
KT	3.48(1.76)	1.35(0.77)	4.01	6.10(2.20)	1.67(0.99)

포털 사업자별 전구간 다운로드 속도는 3.41Mbps~5.12Mbps로 0.61Mbps~1.71Mbps 속도 차이를 보였다.

〈 포털사업자별 WiBro 전송속도 〉

구분	다음	네이버	네이트
다운로드(Mbps)	5.12	4.02	3.41
업로드(Mbps)	1.09	1.48	2.24

6.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품질평가는 KT, SK브로드밴드(SKB), LGU+, C&M, 티브로드, CJ헬로비전이 제공하는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자사망·전구간 전송속도와 웹서핑 시간을 측정하였다.

※ 전송속도: '전구간'(단말기화면↔포털서버)과 '자사망'(단말기↔자사망)을 구분

사업자 전체 평균 전송속도는 전년도에 비해 자사망구간(다운로드 9.4%, 업로드 22.8%)과 전구간(다운로드 232.1%, 업로드 206%) 모두 개선되었지만 전구간의 속도는 자사망구간 대비 50%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 '전구간' 속도 (다운로드/업로드): 사업자별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모두 접속하여 100MB파일을 다운로드, 업로드하여 측정된 속도의 평균값

전구간의 웹서핑 시간은 전체평균이 1.77초로 국제 표준(ITU-T G.1010)에서 권고하는 2초에 만족하는 수준이다.

〈 초고속인터넷 전송속도 평가결과 〉

구분	전구간			자사망 구간	
	컨텐츠 송수신		웹서핑 시간 (초)	다운로드(Mbps)	업로드(Mbps)
	다운로드(Mbps)	업로드(Mbps)			
전체	43.5(13.1)	30.6(10.0)	1.77	90.4(82.6)	80.0(62.6)
SKB	61.6(10.1)	43.4(2.7)	1.41	94.6(93.8)	90.5(80.9)
LG U +	35.1(27.9)	25.7(33.2)	1.99	93.6(91.7)	93.1(90.4)
KT	33.9(14.2)	20.3(9.7)	1.51	92.5(91.1)	92.2(90.8)
SO	티브로드	24.7(-)	12.1(-)	70.2(-)	40.1(-)
	CJ헬로비전	15.0(4.2)	5.5(2.1)	68.7(68.1)	21.7(45.4)
	씨앤엠	13.0(9.2)	3.2(2.5)	76.9(68.4)	6.9(5.6)

※ ()안의 수치는 '09년 평가결과임

포털 사업자별 전구간 다운로드 속도는 26.2Mbps~67.1Mbps로 4.9Mbps~40.9Mbps 속도 차이를 보였다.

〈 포털사업자별 초고속인터넷 콘텐츠 전송속도 〉

구분	네이트	네이버	다음	파란	드림위즈	프리챌
다운로드(Mbps)	67.1	49.3	43.7	37.4	31.1	26.2
업로드(Mbps)	59.8	40.6	19.5	14.7	13.6	34.6

※ 전구간 속도는 사업자 자사망 속도를 포함한 사업자의 IDC(Internet Data Center)에 위치한 서버의 용량(회선, 서버수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됨

타 사업자와 연동되는 ‘연동망 구간’의 평균속도는 사업자 전체 평균이 다운로드 79.0Mbps, 업로드 59.5Mbps로 전년 대비 각각 5.5%, 2.9% 개선되었다.

〈 연동망 속도 평가결과 〉

구분	LGU+	KT	SKB	씨애크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전체
다운로드(Mbps)	92.3 (87.0)	90.4 (86.5)	88.1 (83.6)	74.7 (42.1)	67.5 (67.1)	65.8 (-)	79.0 (74.9)
업로드(Mbps)	91.5 (89.2)	86.9 (86.1)	84.7 (77.9)	6.8 (5.4)	20.7 (44.4)	33.9 (-)	59.5 (57.8)

※ ()는 '09년 평가결과임

이용자가 외국의 인기 사이트(구글, 야후 등)에 접속할 때 영향을 받는 사업자-해외서버간 속도측정을 위해 국내 사업자와 미국(Palo-Alto), 일본(동경)구간을 측정한 결과 사업자 전체평균이 미국구간은 23Mbps(down), 21.2Mbps(up), 일본구간은 68.6Mbps(down), 45.4Mbps(up)로 측정되었다.

〈 국제구간 망 속도 〉

구분	다운로드(Mbps)		업로드(Mbps)	
	미국	일본	미국	일본
전체	23.0(21.0)	68.6	21.2(20.2)	45.4
KT	30.4(23.7)	86.7	30.0(22.5)	77.2
SKB	26.7(19.0)	74.2	24.1(20.5)	62.5
LG U+	23.5(23.7)	34.3	17.0(21.3)	15.0
티브로드	14.6(-)	26.6	1.6(-)	3.0
씨애크	21.9(13.7)	60.0	0.4(1.5)	1.3
CJ헬로비전	21.9(16.2)	53.8	1.4(9.8)	2.0

※ ()안의 수치는 '09년 평가결과임

사업자가 이용자와 약속한 자사망구간 다운로드 최저보장속도 (3사 50Mbps, MSO 30Mbps)를 지키지 못한 품질미흡지역은 티브로드가 54개 읍면동 지역중 7개(13%)로 가장 높고 SKB가 0%로 가장 낮았다. 특히, '09년 품질미흡지역에 대한 재평가에서도 씨앤앰, CJ헬로비전은 여전히 1개지역씩 남아있었다.

〈 초고속인터넷 품질미흡지역 판정 기준 및 측정 결과 〉

품질 판정기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최저보장속도 50Mbps (티브로드, 씨앤앰, 헬로비전의 경우 30Mbps)
품질 미흡지역	(전체)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1,087개 중 1.2%(13개) 품질미흡 (KT)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203개 중 1.0%(2개) 품질미흡 (LG U+)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306개 중 0.3%(1개) 품질미흡 (SKB)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515개 중 0%(0개) 품질미흡 (티브로드)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54개 중 13.0%(7개) 품질미흡 (씨앤앰)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79개 중 2.5%(2개) 품질미흡 (CJ헬로비전)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83개 중 1.2%(1개) 품질미흡
'09년 품질미흡 재평가 지역	(씨앤앰)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16개 중 6.2%(1개) 품질미흡 (CJ헬로비전)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27개 중 1.7%(1개) 품질미흡 (SKB) 전국 평가대상 읍면동 6개 중 0.0%(0개) 품질미흡

7.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전화서비스는 가입자 수가 많은 6개 사업자(LGU+, KT, SKB, 한국케이بل텔레콤, 삼성SDS, 몬티스타텔레콤)의 통화성공률과 음질(R값)을 측정하였다.

- ※ 통화성공률은 통화가 연결되고 단절없이 종료된 비율로 95%이상 시 '양호'로 판정
- ※ 음질(R값)은 '패킷손실(끊김현상)'과 통화지연이 반영된 음질값, 음질값이 88.7 이상 시 '양호'로 판정

인터넷전화서비스 6개 사업자 모두 전체 통화성공률이 99% 이상, 음질 90 이상으로 일반 유선전화 품질수준에 가깝게 나타났다.

- ※ 일반 유선전화는 통화성공률 99.9%, R값은 약 92 정도로 나타남

〈 인터넷전화 사업자별 통화성공률 및 R값 〉

구분	통화성공률		R값	
	평가호수	평균 (%)	평가호수	평균 (점)
전체	24,000	99.91	23,979	90.71
KT	4,800	100	4,800	90.88
SK브로드밴드	4,800	100	4,800	90.83
LGU+	4,800	100	4,800	90.81
한국케이블텔레콤	4,800	99.94	4,797	90.63
삼성SDS	2,400	99.87	2,397	90.46
몬티스타텔레콤	2,400	99.38	2,385	90.33

평가대상 지역 중 한국케이블텔레콤의 4개 지역, 몬티스타텔레콤의 1개 지역, 삼성SDS의 1개 지역에서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질미흡지역 판정 기준 및 측정 결과 〉

품질 판정 기준	통화성공률이 95% 미만이거나, R값이 88.7점 이하
‘09년 품질미흡 재평가 지역	(한국케이블텔레콤) 전국 읍면동 141개 중 4개 지역에서 미흡 (몬티스타텔레콤) 전국 읍면동 77개 중 1개 지역에서 미흡 (삼성SDS) 전국 읍면동 74개 중 1개 지역에서 미흡

8. IPTV

KT, SKB, LGU+가 제공하는 IPTV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의 영상체감품질과 셋톱박스 기능을 중심으로 품질평가를 시행하였다.

IPTV 3사의 전체 평균 영상체감품질은 4.1점으로 국제기준 4.0을 충족하였으나, 콘텐츠 별로는 39.7%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셋톱박스의 기능 중 채널전환 시간은 전체 평균 1.5초로 국제표준이 정한 ‘2초이내’를 충족하였으나 VoD 시작시간은 광고 유무, 광고 시간에 따라 3.5초에서 1분 20초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셋톱박스 부가기능 중 외부멀티미디어 파일 재생기능은 3사 모두 제공 중이며, 생방송 녹화 기능은 3사 모두 제공하지 않고 있다.

< IPTV 품질 평가결과 >

구분		KT	SKB	LGU+	전체	국제기준
측정가구 수		832	576	613	2,021	-
영상품질 평가점수		4.1	4.1	4.2	4.1	4.0
기능	채널전환시간	1.5초	1.6초	1.5초	1.5초	2초
	STB 시작시간	2.3초	2.5초	2.5초	2.4초	10초
	VoD 시작시간	3.5초~56.6초 (평균 29.2초)	4.1초~1분 6초 (평균 33.2초)	35초~1분 20초 (평균 36.3초)	35초~1분 20초 (평균 29.4초)	-
	외부파일 재생기능	○	○	○	○	-
	생방송 녹화기능	×	×	×	×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2010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번 품질미흡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품질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방법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끝.